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악보와 시

THE MUSICAL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가사



뮤지컬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악보와 시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가사

작곡

호르헤 칼란드렐리 • 알 카샤 • 더그 캇사로스 • 헨리 크리거 돈 피핀 • 낸 슈워츠 • 존 세카다 • 데이비드 샤이어

> **구상** 알 카샤

2 ///

**시 개작** 프랭크 에반스

대보

신시아 루이스 페렐 • 토니 그린

안무

보니 스토리

감독

빈센트 패터슨





THE MUSICAL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악보와 시

© 2015.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퍼낸이:**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2015년.

122-A East Foothill Blvd. #306, Arcadia, CA 91006 USA

**인쇄처:** 캐나다

영문판 원서: Loving the Silent Tears: The Musical

-Sheet Music and Poems

프로젝트 감독: Peter Peace

프로젝트 감리: Bella V, Crystal My

디자인: Frans Evenhuis

편집: Lucy Staff

교열: Sara Kudinsky

한국어판

레이아웃 편집: Diba Na

번역: Ru Nam 교정: Afe Byun

사진: Garrett Davis, Ryan Miller, Michael Rueter

ISBN 978-0-9963016-2-6

10 9 8 7 6 5 4 3 2 1

www.OceanofLoveEntertainment.com

Publisher'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Prepared by The Donohue Group, Inc.)

Loving the silent tears: the musical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 /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가사; 작곡 호르헤 칼란드렐리 [and 7 others]; 구상 알 카샤; 시 개작 프랭크 에반스; 대본 신시아 루이스 페렐 & 토니 그린; 안무 보니 스토리; 감독 빈센트 패터슨. -- [Korean edition].

2 volumes : illustrations, music; cm + 4 DVDs (approximately 7 hr.,15 min.)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 기념"--Cover.

Edition statement supplied by publisher.

Set includes 4 DVDs with recordings of: red carpet event, the full

musical, post-show interviews, making of the musical and media coverage.

Contents: [Book 1.] 책으로 보는 뮤지컬의 모든 것 -- [book 2.] 악보와 시.

ISBN: 978-0-9963016-2-6 (Korean edition)

1. Hai, Ching, Supreme Master. Silent tears--Adaptations. 2. Spiritual life--Drama. 3. Spiritual life--Songs and music. 4. Musicals. I. Hai, Ching, Supreme Master. II. Calandrelli, Jorge. III. Kasha, Al. IV. Evans, Frank (Librettist) V. Ferrell, Cynthia, 1956- VI. Greene, Toni, VII.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VIII. Title: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M1500 .L68164 2015

782.1/4



#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노래

시인이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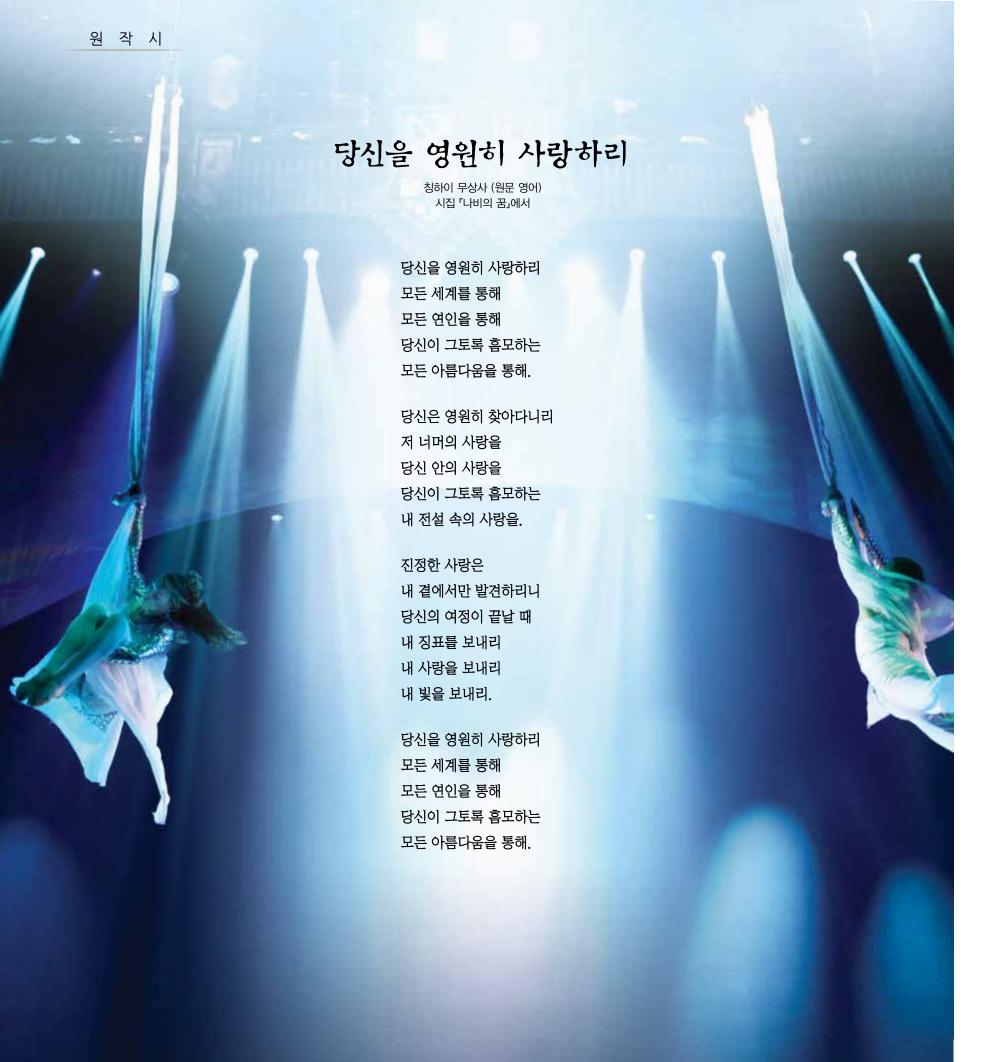
1	당신을 영원이 사당아리"
2	서곡 1
3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1
4	내면의 스승 2년
5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6	흥정을 해봐요 4
7	찬양의 노래
$\mathscr{E}$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5.
9	당신의 자리 없네
10	날뛰는 마음6
11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12	세상은 소용돌이 8
13	영원한 놀이 8
14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sup>†</sup>
<i>15</i>	입문 10.
16	스승과 나 사이11
17	진리와 에고, 영혼, 축복12년
18	진정한 바보13.
19	깨달음14
20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15
21	서로의 손을 잡아요 <sup>††</sup> 16



<sup>\*</sup> 칭하이 무상사가 쓴 노래. 시집 『나비의 꿈(The Dream of a Butterfly)』에서.

<sup>\*\*</sup> 칭하이 무상사가 2007년 3월 포모사(대만)에서 쓴 노래. 시집 『천년의 사랑』에서.

<sup>†</sup> 칭하이 무상사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실린 시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와 "침묵의 눈물」을 원작으로 한 가사. †† 칭하이 무상사가 청소년기에 쓴 시 「사랑하며(Loving)」와 「화해(Conciliation)」, 그리고 20대 후반에 쓴 시 「서로 사랑해요」를 원작으로 한 가사. 원문 어울락어. 시집 "조약돌과 황금(Pebbles and Gold)」과 "천년의 사랑」에서.



#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리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리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리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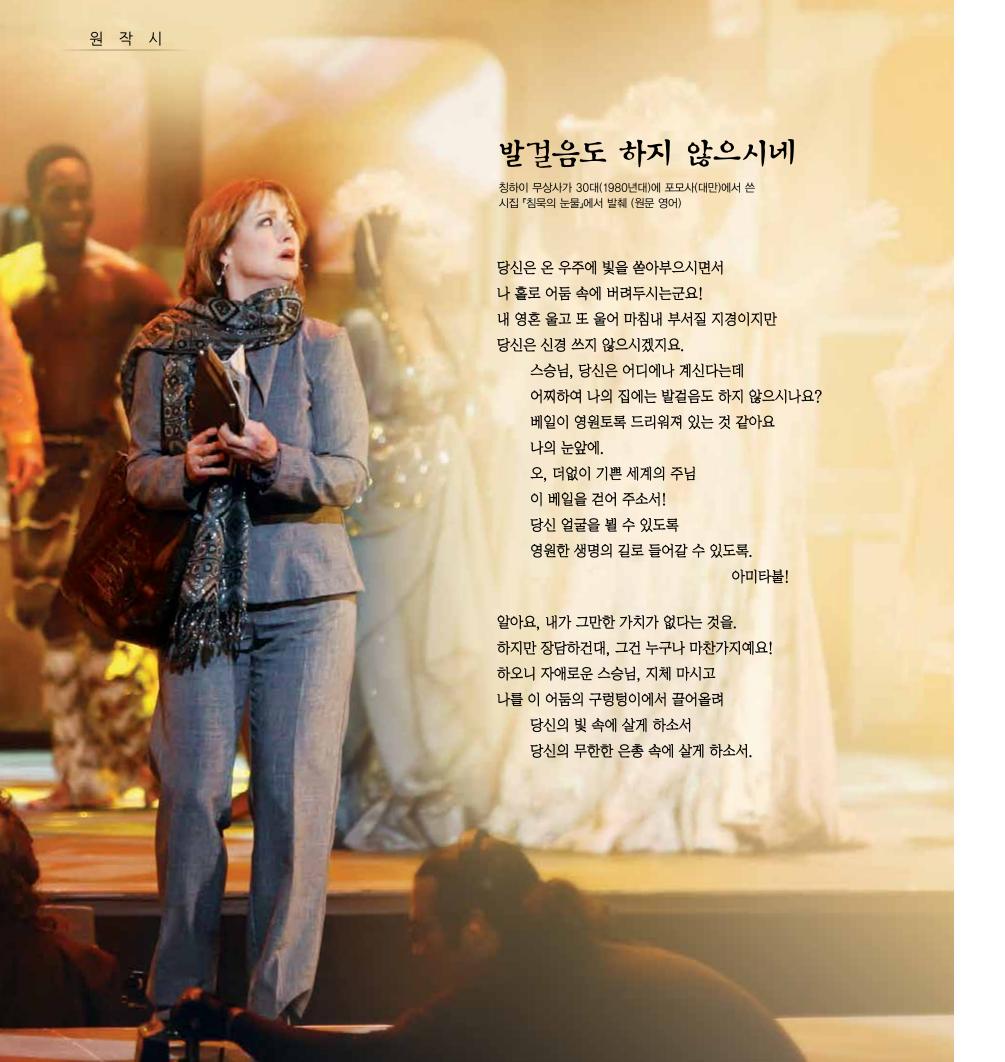




서 곡



서 곡



#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Never Set 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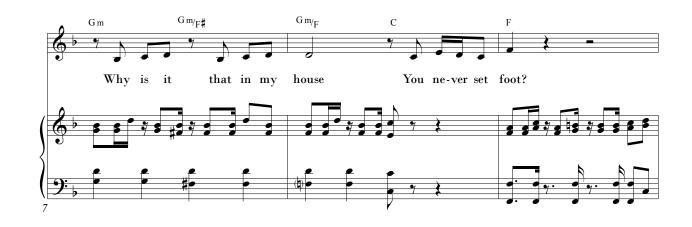
작사: 칭하이 무상사 작곡: 돈 피핀

LYRICS BY SUPREME MASTER CHING HAI

MUSIC BY DON PIPPIN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 내면의 스승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내면의 스승:

영원한 생명의 상징!

우주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힘 있고 자애로운 분.

어떤 이들은 그녀를 아버지, 어머니, 하느님,

만물의 근원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도(道)라 부르며, 또 다른 이들은 낭만적으로

아름다운 신부, 사랑하는 임이라고 묘사한다네.

또 어떤 이들은 본래면목,

대지혜, 완전한 길, 사랑이라 부르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

솔직히 그는 전혀 개의치 않으리.

그러나 그 무엇이 됐든

그 없이는 살 수 없노라.

그녀를 보고 싶은 갈망은 가장 큰 고통.

오직 신묘한 도에 발 디딘 이들만

그 고통을 안다네.

일단 찾기만 한다면

여태껏 미처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되리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빛'과 '소리'를 통해서라네.

천국은 내면에 있노라 – 지금 여기에!

# 내면의 스승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내면의 스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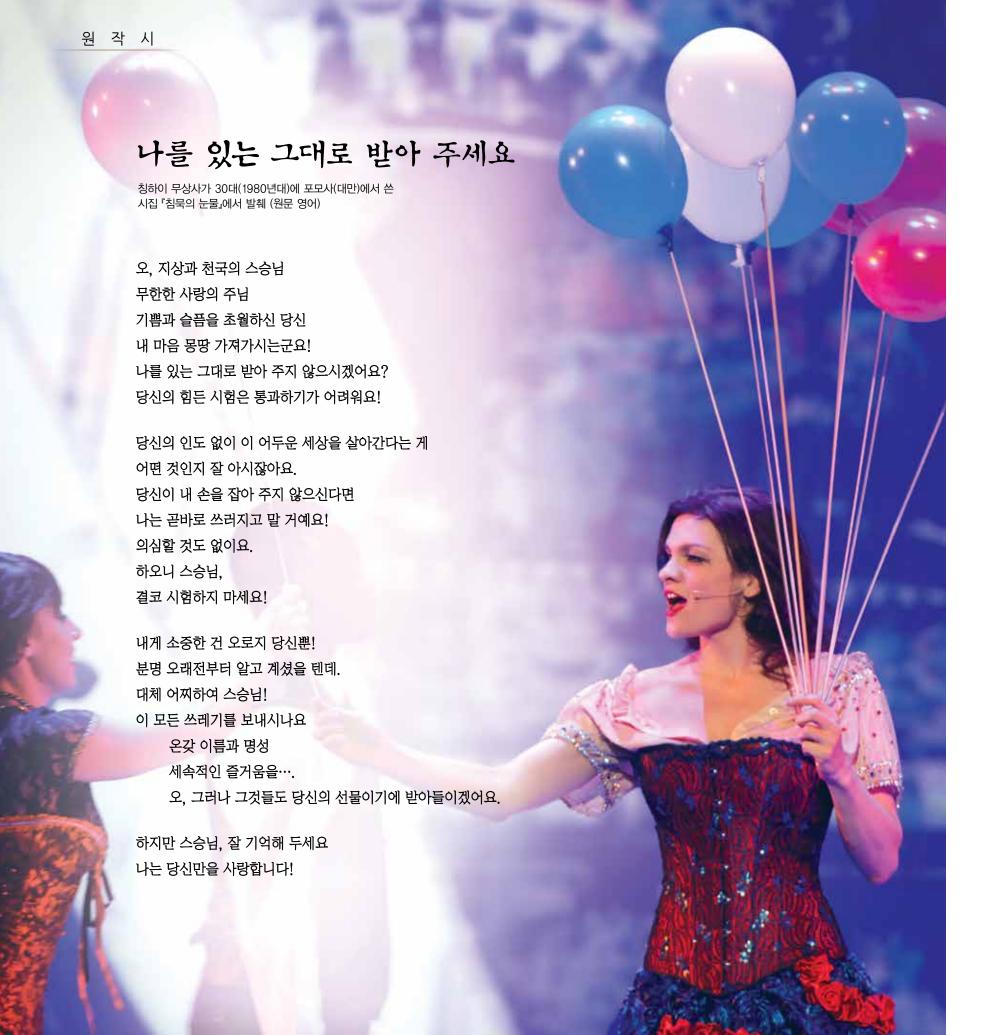




내면의 스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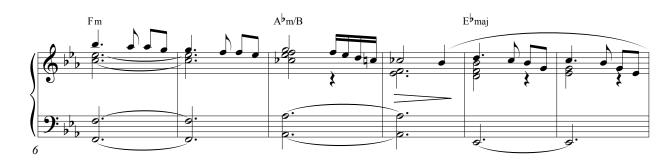
#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Accept Me the Way I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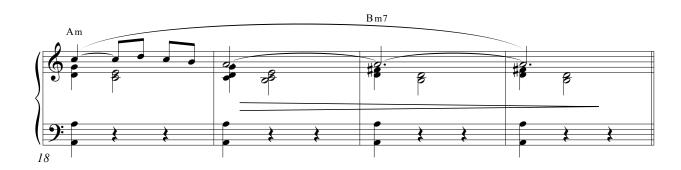
작사: 칭하이 무상사 작곡: 낸 슈워츠

LYRICS BY SUPREME MASTER CHING HAI MUSIC BY NAN SCHWARTZ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38



# 흥정을 해봐요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내가 생사의 사막에서 목말라 할 때 당신은 천국 어딘가에서 감로수를 마시고 계시는군요! 그 길을 알기만 한다면 당장 올라가 가로챌 텐데. 오, 스승님, 영광 중에 영광이신 분! 내게 단 몇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줘야 공평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숨어 계신 곳을 안다면
찾으러 달려갈 텐데.
하지만 아아! 나는 천생 장님이라
그 높은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귀머거리에 벙어리인지라
소리쳐 부를 수도,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 \* \*

당신이 이 가련한 영혼을 창조하셨으니 (다들 내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보살펴 주셔야지요. 아니면 나는 홀로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당신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 주님,

당신에겐 눈이 있으니
나를 거두러 오시고
당신에겐 입이 있으니
제발 나를 불러 주세요.
당신에겐 귀도 있는데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오, 신이시여! 그 위대한 천국에서 홀로 뭘 하시나요?
정녕 외롭지도 않으신가요?!

스승님,

\* \* \*

같이 흥정을 해보고 싶어요. 몇 분간만 우리 역할을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비밀을 아시겠지요. 아니면 기억이라도 하시든가요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 \* \* 이하는 다른 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흥정을 해봐요

Make a Deal

작사: 칭하이 무상사 작곡: 더그 캇사로스

LYRICS BY SUPREME MASTER CHING HAI MUSIC BY DOUG KATSAROS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흥정을 해봐요 흥정을 해봐요





흥정을 해봐요 흥정을 해봐요





흥정을 해봐요 흥정을 해봐요





# 찬양의 노래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스승은 가장 자애로우신 분. 오, 친구들이여, 그분의 한없는 은총 영원토록 말해도 부족하기만 하다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겸허히 눈물만 흘릴 뿐!

이런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신 분이 세상에 다시없네.한 마리 제비 되어한 발로 선 채세세생생당신을 찬양하는 노래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이 모습을 드러내시면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리네! 당신의 존재 수천의 별보다 무수한 보석보다 빛나고 당신의 성스럽고 싱그러운 광채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을 밝혀 주시네.

오, 간절한 마음 기쁨으로 가득하네! 신성한 즐거움 또한. 당신의 무한한 광휘 속에 세상의 모든 근심, 슬픔 사라지네!



# 찬양의 노래

#### Singing Praise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당신에겐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 내겐 오직 당신뿐! 우리 둘 중 누가 더 충실할까요?

> 솔직히 말해 나 자신이 불쌍해요! 대놓고 불평하겠어요!

내 말 들리는 사람 있나요?
나의 스승님은 전혀 관심 없으세요
내가 온 세상을 저버리고
온갖 즐거움을 포기해도….
음식도 이젠 맛이 없고
밤에는 잠도 이룰 수 없어요
모두 그분 때문에!
스승께서 이런 나를 걱정하시냐고요?
천만에요!

스승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걸 잊으셨나 보군요 이제는 천안(天眼)이 열려 있으셔서. 그러니 당신을 뵙길 갈망하며 외로이 있는 내가 안 보이시는 거겠죠.

> 휘황찬란한 더 높은 세계에 들어가시니 나 홀로 이 캄캄한 세계를 헤매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으시겠죠! 오, 당신은 '완전한' 성인인데 어찌하여 눈을 잃으셨나요?

여기 내 인간의 두 눈을 기꺼이 바치오니 24시간 꼭 잘 끼고 계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 한번 보려고 영원히 찾아다니며
이 외로운 길 걷느라 얼마나 지쳤는지
단 한 번이라도 보시겠지요.

스승님! 귀가 있기는 하신가요? 꼭 있어야 하는데! 내 간절한 부름을 들으시려면. 아무래도… 내일은 인간의 두 귀를 사다 드려야겠어요.

\* \* \*

\* \* \*

천국에 올라가시다가 어딘가에서 마음을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내 심정을 아실 텐데요 언제까지나 소매에 매달린 채 당신께 바치고자 안달이 난 내 마음을!

사랑하는 스승님,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내 마음을 가져가세요. 그럼 나와 한배를 탄 모든 동료들의 마음을 아시고 동정하시겠지요 열반을 갈망하지만 윤회밖에 모르는 그들의 마음을.

###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Your Eyes, Your Ears, Your Heart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55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 당신의 자리 없네

No Place for You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당신의 자리 없네 당신의 자리 없네





당신의 자리 없네 당신의 자리 없네





# 날뛰는 마음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당신께 귀의했을 때 당신은 내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하루빨리 실현시켜 주소서 나는 지금 이 어둠의 왕자의 감옥에서 죽어 가고 있으니.

당신은 천국과 지상을 움직이고 악마도 사랑의 천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가장 위대한 마술사님 어찌하여

이 날뛰는 마음은 바꾸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알고말고요! 이미 내게 말씀하셨지요 "만물은 신의 피조물이다."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은 내게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 \* \*

당신의 손길은 돌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악마도 천신(天神)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스승님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어루만져 당신 것이 되게 하소서!



# 날뛰는 마음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날뛰는 마음





날뛰는 마음







##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Talking to a Stone Buddha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 세상은 소용돌이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나는 온 창조계의 입. 숨김없이 외치리라 세세생생 끝없이 돌아가는 생사의 바퀴 속에 그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자비로운 스승님께 기도하오니 어서 그것을 끝내 주소서.

세상은 소용돌이 전갈과 뱀으로 가득 차 있네. 그것들이 탐욕과 분노, 증오로 물어뜯으니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속으로 빠져드네.

오, 스승님, 왕 중의 왕이시여! 부디 저들을 평화의 저택으로 다시 데려가 영원한 봄을 되찾게 하소서.

당신이 누구에게 감미로운 눈길 주실 때면 그이는 자기가 당신의 하나뿐인 연인이라 믿겠지요. 오,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분이시여! 그 눈길, 천 번 만 번 내게 주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눈길 하나 살 수만 있다면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다 팔 텐데. 오, 무한한 빛의 스승님! 자비롭게 이 간절한 마음에 몇 줄기 빛이라도 내려 주소서.

## 세상은 소용돌이

The World Is a Whirlpool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세상은 소용돌이





세상은 소용돌이





# 영원한 놀이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아침 내내 나 홀로 앉아 당신을 뵙고자 했건만 당신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또 홀로 앉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온 세상이 내 절박함을 알 텐데! 하지만 당신은 개의치 않으시지요! 칠흑 같은 내 방에서 뜬눈으로 누워 있습니다. 외로운 촛불 하나뿐 당신의 빛은 단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스승님! 갈 테면 가세요! 원하는 데로 가세요. 난 지쳤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인내심마저 바닥났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약한 중생일 뿐, 당신도 아시잖아요! 난 그만두겠어요. 추신: 내일까지만요.

오, 스승님,

이 영원한 놀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옛날부터 이어진

이 숨바꼭질이?

영겁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건 현명하건

이 놀이에 얼마나 많은 힘을 뺐던가요!

난 그만두겠어요!

언젠가는 당신 스스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어요.

우리 둘 다 좋을 게 없어요.

이제 이 놀이를 멈추어요!

나는 지금 헐벗은 마음으로

의식을 잃고 당신 문가에 누워 있습니다.

행인들도 다 내 처지를 아는데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오, 자비롭고 은혜로운 스승님!

내 영혼에

생명수를 뿌려 주세요, 부탁드려요.

하지만 얼른요!

아니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 영원한 놀이

## Eternal Game





영원한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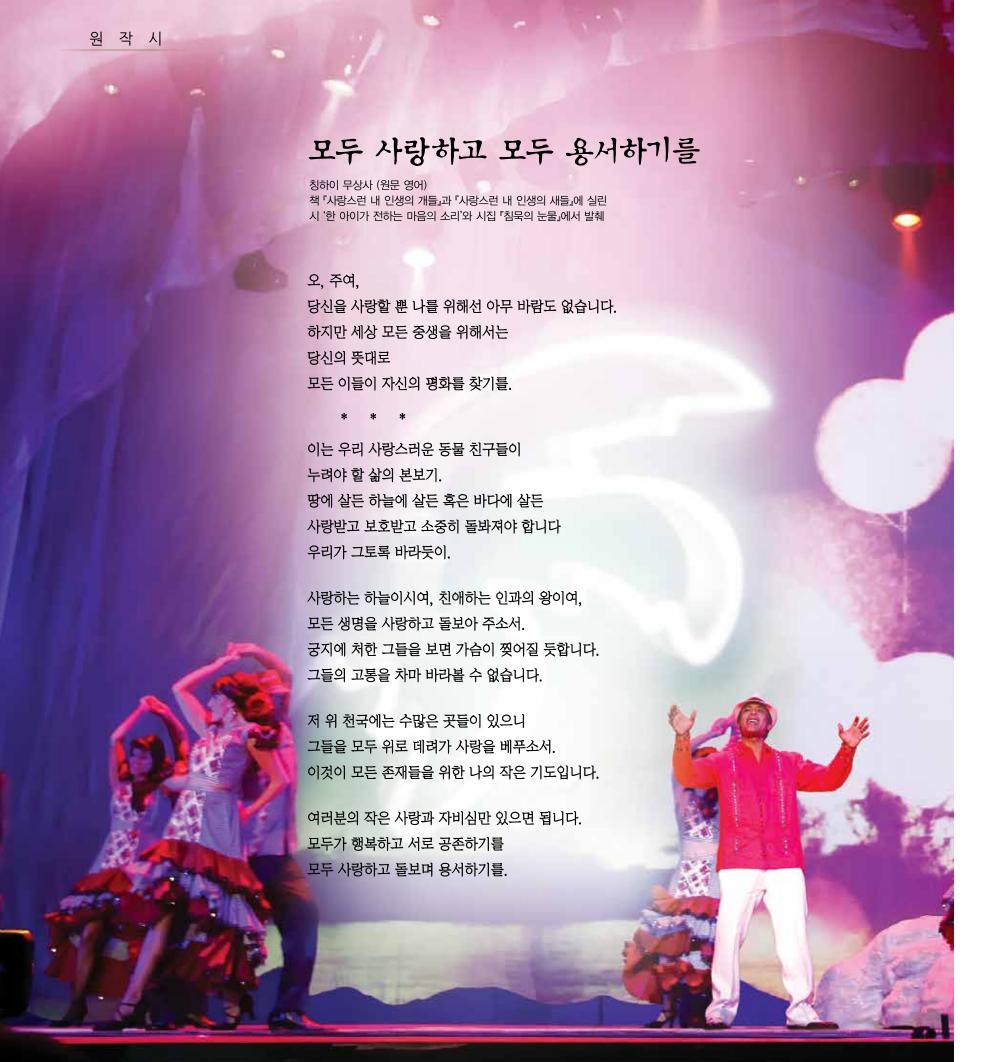


영원한 놀이





영원한 놀이



##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 입문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열정이 어느 정도 식는데 난 당신과 약혼하고서 열정이 타오르기만 합니다!

스승의 사랑이 내 영혼에 드리워질 때 난 젊은이로 거듭납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

칠팔십 노인에게서 춤추는 눈망울과 생기 넘치는 청춘을 본다면 형제들이여, 알아야 해요 그건 스승의 기적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은 내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사랑의 참뜻을 몰랐겠지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어요 나를 미쳤다고 할 테니까! 정말이지 난 당신의 신성한 감로수에 빠져 버렸습니다.



# 입문



In-deed, I've \_\_\_\_\_ be-come in - tox - i-cat-ed\_ with di-vine A/C# E/B My i-ni-ti - a - tion. Nec - tar. My i-ni-ti - a-tion. tion! When Mas-ter's LOVE falls u-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입 문





입문



입 문





### Between the Master and I

작사: 칭하이 무상사 작곡: 낸 슈워츠

LYRICS BY SUPREME MASTER CHING HAI MUSIC BY NAN SCHWARTZ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하길래 그들의 예술을 따라 해볼까도 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입만 열면 '진리'가 방울방울 쏟아집니다!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자 당신의 거룩한 모임에 들었는데 가장 힘든 일을 요구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 \* \*

내 에고를 버리라고 하실 줄이야!

당신의 시는 내가 읽은 가장 감동적인 시. 하지만 사랑하는 스승님, 어찌하여 내 영혼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비밀을 모두 다 밝히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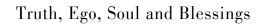
남편이 떠난다면 거의 못 살겠지요. 자식들한테 버림받는다면 분명 울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저버린다면 정말 비참하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외면하신다면, 사랑하는 스승님! 난 죽고 말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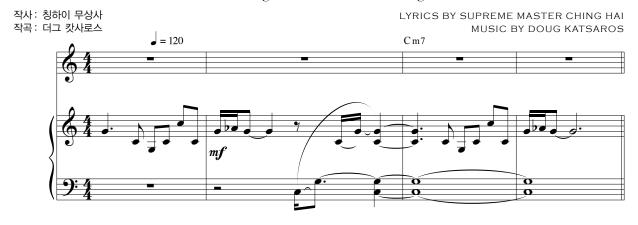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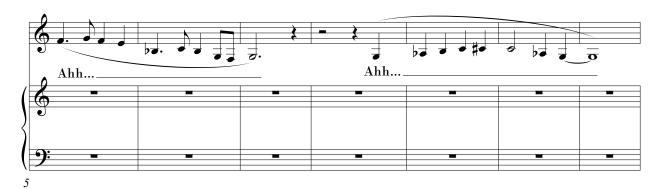
나를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이 어서 피어나길 기도하겠어요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에서 나오는 수천 수만 개 태양 빛의 은총을 통해서, 오, 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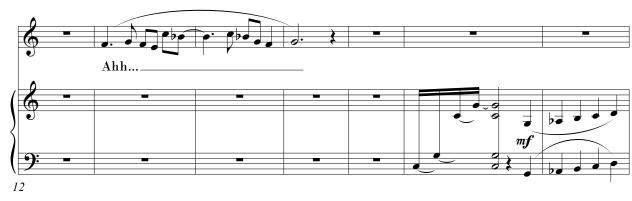
당신이 바다에 눈길 한번 주시면 오, 장엄하신 임이여, 물고기들은 모두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를 겁니다. 그럼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인간의 복과 공덕의 들판을 기름지게 할 테지요.

당신의 축복,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칩니다. 악한 이와 선한 이 아름다운 이와 추한 이 신실한 이와 가치 없는 이 모두에게 똑같이! 오, 스승님,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 부를 길 없어 가슴에 당신의 사랑을 품고 밤마다 함께 잠이 듭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122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포모사(대만)에서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원문 영어)

오, 만물의 주님!

내 운명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은 내게 너무 막중한 큰 사명과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산을 오르려 안간힘을 쓸 때면 돌덩이를 굴려 보내시지요!

스승님! 스승님!

어서,

저를 구하러 와 주세요!

안 그러면 이 미친 신과 산 채로 파묻히고 말아요!

\_\_\_\_\_\_

난 진정한 바보겠지요

부처가 되려 한다면

완전한 스승이 되려 한다면.

구루!

마하라지!

어찌하여 이 온갖 짐을 제 어깨에 올려놓아

당신 곁에 앉을 귀한 시간을 없애시나요?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분이여!

어떤 일을 맡기시든

제 목숨을 거는 일이라도 해내겠어요.

하고말고요!

그저 당신에 대한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

## 진정한 바보

### A Real Fool

작사: 칭하이 무상사 작곡: 낸 슈워츠

LYRICS BY SUPREME MASTER CHING HAI MUSIC BY NAN SCHWARTZ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 Loving the Silent Tears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칭하이 무상사가 쓴 시집 『조약돌과 황금』과 『천년의 사랑』에서 발췌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요! 겨울 바닷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울부짖는 바람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웃을 수도 있는데 왜 울어야 하나요? 기쁨을 버리고 왜 고통을 찾아 나서나요?

\* \* \*

서로의 손을 잡아요. 혼돈의 경계 위로 날아올라 삶을 내려다봐요. 우리 웃음이 천상과 지상에 울려 퍼져요. 사랑하는 이여! 서로를 꼬옥 껴안고 자비의 말을 나눠요 사랑의 말을 속삭여요. 옛날의 낙원을 다시 만들어요 우리가 처음 서로의 삶으로 들어가던 날처럼. 그래요, 나의 소중한 이여!

그러면 사람들의 고통 그치고 그러면 사랑이 세상을 밝힐 거예요. 곳곳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고 천국과 인류에게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 \* \*

Take Each Other's Hand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여의주의 왕이여,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기는 한가요? 99

-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